**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디아코니 축제:** 오늘, 북한선교를 위한 음식바자

**ㆍ오늘 설교:** 이은용 케냐 선교사(KWMF사무총장)

**ㆍIKK에큐메니칼예배:** 9월15일(토) 15시 Johanneskirche Düsseldorf

**ㆍ다음주일은 9월 나라주일입니다.**

**ㆍ한국방문:** 배영빈(부친 별세)

**ㆍ생일:** 박신혜, 한상철, 김드보라

**◆말씀일기 일정**

일/롬5:1-11 월/롬5:12-21 화/롬6:1-14 수/롬6:15-23

목/롬7:1-13 금/롬7:14-25 토/롬8:1-17 일/롬8:18-30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47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9월 9일** | **9월 16일** | **9월 23일** | **9월 30일** |
| **예배기도** | 권순아 | 김좌겸 | 강일구 | 김평님 |
| **말씀일기** | 손교훈 |  | 단주현 | 박요셉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박성호, 송인선 | | | |
| **애찬봉사** | 디아코니 축제 | 나라주일 | 밥상 셋 | 밥상 넷 |

**35-36호 2018년 9월 9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3:14)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재용 목사** HP. 0157-5346 6942

**교육/ 신동철 목사** HP. 0177-231 7003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9장1절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79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13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권순아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막4:30-32 …..….....……..……..… | 손교훈 목사 |
| 설교/Predigt ....…..……..…… **생명의 겨자씨를 심자**....….....…….. | 이은용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505장 ……….………………………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함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이은용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롬3장 '3가지 안타까움' ◈**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드는 안타까움 3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값비싼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굴러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 현실이다. 본 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믿음으로, 믿음으로’를 외쳐서는 곤란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30, 31) 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22)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거나 모독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자칫 변형된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다.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와 함께 붙어 다녀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2)은 막중한 책임을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개운칠 않다. 수 많은 설교와 성경공부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복음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분의 의에 기반한 것인가, 솔직히 의문이다. 한국 교회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든 하나님은 우리 한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번번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곁 길로 새고 있다면 큰 일 아닌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 것도 나은 게 없다. 동일하게 죄 아래 있다(9).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적 존재이다.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말씀을 제 멋대로 왜곡하는 어리석음과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셋째는, 개역개정 성경의 문장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성경 본문을 본래 뜻대로 읽어낼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답답하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니 그야말로 쉽던데…

**◈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곳 ◈**

▶스펙트럼 교회(이광열 목사)

▶'겨자씨' 모임(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

▶NRW 평신도연합회

▶유럽 기독교교육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연합 캠프(JC)

▶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이명선 총무)

▶유럽 코스타(청년수련회) ▶유럽 크리스찬 신문(이창배 목사)

▶예장 유럽선교회 ▶우크라이나 임현영 선교사

▶장학 지원 ▶북한 선교 ▶디아코니 협력 후원

▶굶주린 이웃 돕기 (케냐 총게노 고아원, 이은용 선교사)

▶기타 구제 사업 ▶선교관 기금 마련